

함께 만드는 공동체 지도로 선을 이룬다

〈善〉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매핑

임완수 지음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했다. 당시 뉴욕, 뉴저지 지역 70-80퍼센트가 정전됐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파괴됐다. 전기가 끊긴 나머지 가정에서는 히터를 틀 수 없었고 도로가 막혀 주유소 기름도 공급받지 못했다. 시민들은 주유소를 찾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두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질서와 혼잡 속에 경찰과 군인들이 주유소를 지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때 몇몇이 노트북을 펴고 주유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지도 위에 데이터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데이터를 제공해주었다. 위 사례는 비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당시 온라인 지도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연방재난관리국, 에너지국, 뉴욕시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사용했다.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이라는 말이 있다. '공동체 지도 만들기'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혁신 도구로 사랑받고 있다.

임완수 미국 메릴랜드 교수는 '커뮤니티매핑의 선구자'로 불린다. 지난 2005년 임 교수가 집단지성을 이용해 만든 '뉴욕 화장실 온라인 지도'는 커뮤니티매핑의 선구적 모형으로 꼽힌다. 커뮤니티매핑인스티튜트 소장도 역임하고 있는 임 교수는 최근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매핑'이라는 책을 펴냈다.

책은 그동안 저자가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

마스크 시민 지도



코로나 사태때 마스크 구매 장소를 실시간 보여주었던 마스크 시민 지도.

온 커뮤니티매핑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범박하게 말하면 커뮤니티매핑에 관한 최초의 교과서인 셈이다. 임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의 커뮤니티매핑센터 운영을 위해 틈틈이 한국을 찾는다.

커뮤니티매핑은 시민과학, 리빙랩과 연관한 사회혁신의 도구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과학자가 참여하는 과학 프로젝트의 뜻을 지닌 시민과학과 사용자 공동창의에 기반한 열린 혁신 생태계인 리빙랩, 그리고 공동체 지도 만들기는 모두 비전문가들의 참여로 변화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지도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구글을 비롯한 지도 관련 도구들이 공개되면서 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스마

트폰이 보급되면서는 지도의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매핑의 중요한 가치는 '함께'이다. '과정의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함께 만드는 공동체 지도라는 좀더 폭넓은 뜻이 담겨 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커뮤니티매핑은 활성화된다.

이러한 방식은 집단지성의 발현이다. 앞서 언급한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지리정보 기반의 지식을 공유해 선

한 가치를 실현했다.

또 하나의 예가 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에서는 배리어프리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장애인 접근성 커뮤니티매핑을 지역사회 기반 활동을 확장한 개념이다. 당시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제는 길을 걷게 되면 음향신호기나 점자블록, 불라드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볼게 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저자는 커뮤니티매핑을 도모하며 '협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을 기억한다. 그것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사는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 <빨간소금·1만5000원>/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중화명승=중국 소설 전공자 21명이 중화권의 명소들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은 발굴된 지 50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그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진시황릉, 대운하의 기착지인 양저우의 저장거리 동관가, 과거 시험의 희비가 교차했던 난징 강남공원,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품은 항저우 뇌봉탑 등 중국 주요 유적지와 도시 이야기를 전한다. <소소의책·1만9000원>

▲불공정사회=이진우 포항공대 교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사안을 바탕으로 과연 무엇이 공정한지 질문을 던진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이클 샌델 등 고급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해 법, 능력, 부, 연대, 이념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들이 공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한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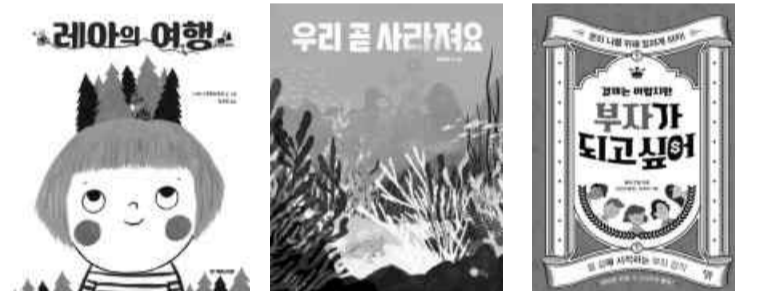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노트='죄악의 천사들', '돈' 등 영화 13편을 만든 프랑스 출신 감독 로베르 브레송(1901~1999)의 작가 일지로 저자가 쓴 짧은 글 456편을 모았다. 작업에 어떤 원칙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과 고민, 깨달음을 담고 있으며 영화를 특징짓는 방식들이 어떠한 문제의식 속에서 완성된 것인지 보여준다. <문학과지성사·1만5000원>



지 보여준다. <문학과지성사·1만5000원>

▲수영의 이유='뉴욕타임스'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칼럼을 쓰는 보니 추이가 수영하는 이유를 삼중 탐구하면서 건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한다. 수영을 사랑하는 저자가 '왜 수영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이 책은 수영하는 이유를 생존, 건강, 공동체, 경쟁, 몰입 등 다섯 가지로 나눠 탐구했다. 아울러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함께해온 수영에 대한 감상을 적었다. <김영사·1만5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레이아의 여행=레이아는 어느날 혼자 바다를 보러 가기로 결심한다. 친구 루도가 준 초콜릿도 빼먹지 않고 꼼꼼히 여행 가방을 챙긴 레이아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으로 기차, 버스를 탄다. 이윽고 도착한 바다. 한없이 푸르고 넓다. 설레는 출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처음 본 풍광이 주는 놀라움까지, 여행이 선사하는 즐거움을 전한다. <국민서관·1만2000원>

▲우리 곧 사라져요=푸른 바닷속에서 민팔물고기 길을 잃었다. 민팔물고기는 가시해마와 푸른바다거북에게 자신과 닮은 물고기를 본 적이 있는지를 묻지만 자신들도 잃어버린 친구와 친척들을 찾

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바다를 뒤덮었는데...이에속 작가는 멸종 위기 바다 동물들의 이야기에 산호 그림 등을 더해 생동감을 더한다. <노란상상·1만3000원>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미국 아마존에서 5년간 어린이 경제금융 분야 상위권을 지킨 베스트셀러다. 기초 경제 개념들과 금융 지식을 초등학교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풀어냈다. 은행, 신용, 주식, 환율, 카드빚 등의 개념과 금융에 관한 실생활 지식을 알려주며 돈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용해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월북·1만3800원>

8편의 '소설'로 경고한 생태계 파괴와 약육강식 시스템

숨 쉬는 소설

최진영 외 7인 지음



땅도, 대기도, 바다도 오염돼 황폐해지진 오래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플라스틱은 돌고 돌아 이제 인간의 몸을 해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뒤 이어 올 사람들에게 큰 빚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제대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명과 삶은 안전한지, 함께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온 국어교사들이 그 이야기를 '소설'을 통해 나눠보려고 했다.

'푸른 숨결과 생태 감수성이 가득한 지구를 꿈꾸며' 교사는 여덟명 작가의 단편소설을 한 데 묶었다.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최진영·김기창·김중혁·김예란·임솔아·이상숙·조시현·배명훈 작가의 작품이다.

노동을 주제로 한 '땀 흘리는 소설', 사랑을 주제로 한 '기슴 뛰는 소설', 재난을 주제로 한 '기억하는 소설' 이어 네번째로 출간되는 이번 테마 소설집 '숨 쉬는 소설'에서는 작가들이 담아낸 지구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작가들은 '결에 둔 생명을 제대로 '반려'로 대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인간의 몸이 지닌 가치를 성찰하고, 약육강식 시스템을 비틀어보기도 하며 '이' 이야기를 풀어낸다.

김예란 작가의 '노란색과 에반'은 인간과 반려견의 이야기를 다룬다.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할머니와 살아가는 소년 찬성은 어느날 할머니가 일하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려진 개를 만나고, '에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하지만 이미 늙은 개였던 '에반'은 병에 걸리고 동물병원을 찾은 찬성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김기창의 소설 '약속의 땅'은 북극곰 '아푸트'의 시선으로 기온 상승 때문에 녹아내리는 북극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매일 아이들의 불을 자신의 얼굴로 비비며 애정을 전하고, 위협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북극곰의 고

군분투하는 모습이 눈물겹다.

김중혁의 '심심풀이로 엘버트로스'는 플라스틱 섬에서 표류하다 살아 돌아온 사람 '조이'가 등장한다. 바다 위로 추락한 경비행기에서 간신히 탈출한 조이는 커다란 플라스틱통을 붙잡고, 바다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그 곳은 운통 쓰레기 천지다.

이상숙의 '어느 시인의 죽음'에는 고기가 된 인간이 등장하며 조시현의 '어스'에서는 인간의 몸이 산업 쓰레기로 분류돼 지구로부터 거부당하는 미래의 상황이 펼쳐진다. 또 배명훈의 '조개를 읽어오'는 조개들의 말을 연구하는 화자를 통해 '파도 하나까지 기억하는' 조개의 모습을 그려낸다.

그밖에 장난감에 금지된 화학 물질을 첨가하는 회사의 비밀을 알게 된 '나'의 이야기를 담은 최진영의 '돌담', 사고로 발가락 하나를 절단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임솔아의 '신체적출물' 등을 만날 수 있다. <창비교육·1만6000원>/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